

새로운 가사 작품 <감별곡>에 대하여

구사회*

<차 례>

1. 머리말
2. <감별곡>의 작품 전문
3. <감별곡>의 자료 검토와 창작 시기
4. <감별곡>의 작품 구성과 담론 내용
 - 4.1 작품 구성
 - 4.2 담론 내용
5. 맺음말

<국문초록>

<감별곡>은 경상도 양반 집안의 아녀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지은 규방가사이다. <감별곡>은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다가 출가했던 아녀자 7인이 20여년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재회를 기약하는 신변탄식류의 가사작품이다. 이 작품은 표기법이나 어휘 사용, 작품의 마지막에 기록된 간기로 미루어 개화기인 1892년 2월에 작성된 것이다.

<감별곡>의 작품 구성은 대부분의 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사' - '본사' - '결사'로 이뤄져 있다. <감별곡>의 '서사'에서는 작품명과 창작 동기가 제시되었다. '본사'는 세 단락으로 나뉘지는데, '본사1'에서는 여성들이 성장하여 결혼하면서 부모형제의 곁을 떠나는 여성의 처지를 말하고 있다.

'본사2'는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부분은 여성 7인의 출가한 집안과 각각의 성격과 성품을 읊고 있다. 둘째 부분은 여성들의 설움과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새로운 문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기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 선문대학교

‘본사3’에서는 이들 여성들이 봉건사회의 구속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윤리 규범을 존중하자는 그들의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결사’는 이들 여성 7인이 자신들의 이별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서도 독자들에게 그러한 여성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마디로 <감별곡>은 조선사회 남존여비의 봉건제도 아래에서 여성들이 삼종지도라는 전통적인 규범을 따라야만 하는 고통과 원망의 내용을 담론화한 작품이다. 그래서 <감별곡>은 봉건사회에서 사회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고통과 한탄을 담고 있다.

핵심어 : 규방가사, 안동문화권, 삼종지도(三從之道), 봉제사(奉祭祀), 담론, 타자(他者)

1. 머리말

조선후기에 주로 영남지방 양반가 부녀자들 사이에서 창작되며 전승되었던 규방가사에는 우리 전통사회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겪은 삶의 모습과 의식이 잘 드러난다. 그것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예술성이 잘 표현되어 있고,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의식 변화나 가치 체계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방가사는 일명 <두루말이>나 <가스>라고 불리우는데,¹⁾ 20세기에 들어서도 창작되었고 70년대 산업화시대에 지어진 작품들도 보인다. 오늘날에도 경북 안동의 살아있는 여성노인들은 가사를 필사한 경험이나 창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²⁾

규방가사는 현재 두루마리에 한글 궁서체로 쓴 6천여 필이 넘는 작품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규방가사는 근래에도 새로운 작품이 발굴되고 있는

1)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9면.

2)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의 생애경험」, 『고시가연구』24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9, 197-234면.

데, <감별곡>도 그것의 하나이다. <감별곡>은 2천여 글자로 이뤄진 중형 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개화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남존여비의 봉건사회에서 여성들만이 겪는 삶의 애환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새로운 문명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견 하며 그것에 따른 생활과 규범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다. 이 가사작품에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유교사회의 가부장적 관습들이 약화 될 단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별곡>에는 아직 전통 규범에 속박되어 있었던 당대 여성들의 생활 규범이나 가치 의식과 함께, 양반가 아녀자들의 가문 의식이나 남존여비의 유교적 관념들이 잘 담겨 있다. 아울러 우리는 <감별곡>을 통하여 봉건사회의 가부장사회에서 여성들이 유교 규범에 구속되어 타자로서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감별곡>이란 새로운 가사 작품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작품 전문을 제공하고 자료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과 내용을 살피고 그것의 담론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2. <감별곡>의 작품 전문

<감별곡>

어제밤 부든 바람 화류동풍 와년흐다
 우리소회 풀어니야 감별곡 지으리라
 천의의 혼변 이별 언지다시 드라오며
 월희의 즐기든일 언제런가 꿈이로다
 여즈의 혼변 거름 원부모 이형지라
 부모님 슬전이서 동기지정 모와눗코
 널친척 지화로서 화순지락 즐기다가
 고법이 귀중하야 명문의 출가하야
 습중지 썬을바다 동서로 헛터진이
 즈이 곱흔 부모실전 언지다시 옛다드며

다정튼 여러 친우 핫기약이 방연하고
 그리운 고향순천 언지불고 변~하다
 차좁다 우리 여즈 이쳐롭고 그지업네
 이십연 긴식월을 년척점옥 자라날제
 빅천가지 기리즌난 천만시로 아라든이
 조물이 시기런가 천전의 연분인가
 일조의 풍운이별 구고간장 녹여닌이
 몽~히 나린봄빛 별누을 디신흔 듯
 솔~히 부난바람 한숨세워 부려준다
 그나마 우리 친구 누구~~ 모혀든고
 덕기잇든 김서방딕 천전으로 출가햐야
 좌중의 연이라
 은근한 슈작이며 정다운 그 성품을
 금변의 이별하며 하월하시 다시만나
 이번의 미진소회 흑옥히 풀어불고
 풍경조흔 남서방딕 눈실노 출가햐야
 조석으로 서로만나 즐기는일 기이햐다
 뉴촌정~ 김서방딕 닉급으로 출가햐야
 천성이 화순한이 의연한 그마음이
 풍부키 할양업네
 순후한 남서방딕 호촌으로 출가햐야
 부덕도 할양업고 인정도 남달나서
 나난이 축축햐기 친형제나 다람업고
 년~한 김서방딕 외너로 출가햐야
 의연한 성질이며 별정적인 그 성품이
 하로을 못보아도 습츄을 막은다시
 호방승심 햐는일이 천고에 기스로드
 온순무비 이서방딕 으인으로 출가햐야
 요료~~한 그긷티이 겸햐야 의인지심
 뉴다르게 다정햐이 엇지햐야 셋칠손고
 뉴슈모쥬 남서방딕 호지말노 출가햐야
 괴활햐 그심정의 풍정도 조홀시라
 첫귀령이 어긱지라 디인점물 순호지덕
 셋칠일이 난감햐다
 이러한 우리친구 이식승의 쏘이쓰라

심증이 원하기럴 우리모듬 미양잇서
 썸이 그든 썸지말고 압초불이 하야든이
 세스가 황든흔 변칙이 무승하야
 지나간 일춘몽갓고 오난일이 흐도십퍼
 만일의 넘이 일은 너급간 김서방되
 반경흔 성일이라 일야을 겸회손이
 쓸이고 밋친회포 무엇쓰로 형은할고
 슴춘하류 조흔시절 불원간 남겨두고
 익석흔 이 죽별은 어이하야 하즌말고
 연화봉 쏜노리와 스쥬강 비노름을
 슴월만간 기약현이 오날날 헤어진후
 소일진한 어이할고 구십춘광 연만화난
 도쳐만 다 잇건만은 우리여즈 이서름은
 언찌다시 이슬손가 우리 한번 훗터진후
 뉴슈갓치 가는 과음 춘풍츄우 지나가서
 혼양빅발 벗구멍은 시흥~~ 부즈리라
 악슈승봉 일석달난 두변잇기 더려운이
 슬푸다 우리몸이 녀즈된 것 한이로다
 인간이별 예로부터 비빅비천 잇건마은
 우리들 이이별은 압기약이 모연하다
 함누안간 함누안과 간중이송당 중인은
 네스람의 석별이요 연슈화월 고희고
 손이의 팔오년은 우리들의 소회로다
 선봉이 놓고놓하 우리훈숨 스라잇고
 스슈가 깃고깃혀 별뉴을 모아온듯
 여보소 녀러친구
 우리비록 녀즈이나 시디가 네과달나
 선풍조선 문화가 방~곳~ 슈입되고
 슈로곳통 보든설비 펠이하기 쪽업슨이
 금신봉별 흥은후의 뉴시록 그럽그던
 만~전의 음신흥고 츄월춘하 조흔찌며
 구고계 풍연흥고 군즈계 허의어더
 쌀이가는 즈동츠의 날린다시 몸을시려
 그리든 부모슬전 정드른 고향스천
 다서몸 모혀드러 흥~담나 즐겨보시

그러나 이런 말은 미련의 공손이랴
 과거를 추억하고 지금을 헤아리이
 인간의 변점무승 싱각스록 혼숨이라
 우리도 이리치만 아리칭 크난아회
 간연이 다츠신이 우리간후 멧히안이
 우리와 혼가지로 각분동셔 흥계될일
 근뜻한 헛부르다
 인성이 덧업슨이 익오싱지 슈육하고
 세승스 난이니 선중강 무궁이라
 그르나 우리 친구 다각기 붓탁흥세
 우리몸은 여즈이라 남즈와 달으온나
 명쥬의 후에로서 출가명문 흥야스니
 각으로 훗터져서 시딕으로 가그들낭
 사구고이효하고 봉군즈 이성하고
 봉제스 꺾빈익을 습가하고 공경흥며
 디친척이비복을 화복히을 쥬로습아
 입스 써을 바다 중강의 덕을 짝가
 낙~도록 못본동안 히소식 전흥다가
 흥년흥월 다시만나 지금이별 옛말습아
 히~낙~ 흥계되며 인간익 조흔일이
 나밧기 쏘이슬가 무궁정회 만단설화
 녀스양히 높고깊히 만권지부족이요
 일속필 부족이라
 무지몰각 좁은속연 엇지다 기록흥리
 이월초길 닛노름도 우리녀즈 노름으로
 천고불망 승승이라 이난 써들 이즐손가
 이렷흔 히한스와 이렷흔 쓰리이별
 흥말의 표적업시 훗터지기 어렵기의
 황스줄필 희쥬설노 디강만 적어두어
 오날~ 우리회석 천만년기렷흥시
 디어로할 말습은 우리 칠인쥬의
 십시부인 호춘딕과 김셔방딕 외딕딕과
 남셔방집 괴시딕은 사~동갑 년분으로
 정의가 남달나서 무쥬무석 동낙이요
 동셔동침 불상이라

이갓탄 교분으로 이별을 어이하리
두어라 새승인스 조변석화 십게되이
한탄한들 무엇하며 말히선들 소용있나
만닐 썩나 금시극지 무험히 즐기다가
작별상의 다달나서 잘가라 잘잊거라
무지일조 할 일이로다
보시난 여러분도 고안의 불만이다
우리소회 만분이나 아라주소

임신연 이월 넘어닐 출서
병신연 이월팔일 등서

3. <감별곡>의 자료 검토와 창작 시기

<감별곡>은 본래 경북 안동에서 나왔고 규방가사의 일종이다. 규방가사는 크게 교훈적인 가사와 생활체험적인 가사로 나눌 수 있고, 교훈적인 가사는 계녀류와 도덕류로, 생활체험적인 가사는 탄식류, 송축류, 풍류류로 다시 나눌 수 있다.³⁾ 권영철은 규방가사의 유형을 21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⁴⁾ <감별곡>은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다가 출가했던 아녀자 7인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재회를 기약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여성이 성장하여 결혼하면서 부모 형제나 친구와 이별하고 시댁에서 삼종지도의 예법을 좇아 살아야하는 그네들의 힘든 삶을 잘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감별곡>은 규방가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변탄식류의 가사 작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김문기, 「가사」, 『한국문학개론』(한국문학개론 편찬위원회 편, 혜진서관, 1991), 153면.

4) 계녀교훈류, 신변탄식류, 사친연모류, 상사소회류, 풍류소영류, 가문세덕류, 축원송도류, 제전에도류, 승지찬미류, 보은사덕류, 의인우화류, 노정기행류, 신앙권선류, 월령계절류, 노동서사류, 언어유희류, 소설내간류, 개화계몽류, 번안영사류, 남요완상류, 기타.(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31-32면.)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에 나타난 규방가사는 주로 영남지방 양반계급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주로 나왔고,⁵⁾ 그 중에서도 경북지방 내륙에서 많이 나왔다.⁶⁾ 규방가사는 향유지의 분포도가 안동, 성주, 경주의 문화권으로 나뉜다.⁷⁾ 그렇다면 <감별곡>은 경북 내륙의 안동문화권에서 나온 것이며 작품 내용도 영남 남인의 집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감별곡>에 나오는 안동 천전마을의 김서방댁이나 안동 의인마을의 이서방댁, 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 호지말의 남서방댁 등은 모두 영남 남인들의 세거지였기 때문이다. 안동시 천전마을은 의성김씨의 종택이 있는 곳으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안동 의인마을은 진성이씨의 세거지로써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향촌의식보다 오히려 씨족의식이 강하고 모두들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집안들이다. 그들은 가문에 대한 각각의 자부심이 강한 만큼 내외를 구분하려는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성향을 지녔다. 상대적으로 이들 집안에 속하는 여자들은 남성 위주의 가족 구조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속박을 받으며 그것에 맞춰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 여성들은 일단 출가하면 출가의외인으로 친정도 자주 가지 못하고

5) 규방가사는 주로 영남지방에서 나왔다는 학설이 주류를 이룬다. 조운계나 이명선 이래로 아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다.

조운계, 『조선시가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430-435면.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128면.

정형용, 『국문학개론』(우리문화회 지), 일성당서점, 1949, 185면.

김석하, 『한국문학사』, 신아사, 1975, 255면.

박성의, 『국문학통론·국문학사』, 이우출판사, 1980, 418-419면.

김문기, 「가사」, 『한국문학개론』(성기옥 외), 새문사, 1992, 148면.

이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아래 논의처럼 규방가사가 영남지방 이외에서도 꾸준히 지어졌다는 보고가 있다.

사재동, 「내방가사연구서설」, 『한국언어문학』2집, 한국언어문학회, 1964, 127-141면.

박오순, 「호남지방의 여류가사 연구」, 『국어국문학』48집, 국어국문학회, 1970, 67-89면.

김선풍, 「강릉지방 규방가사 연구」, 『한국민속학』9집, 한국민속학회, 1977, 1-25면.

6) 권영철, 앞의 책, 344-345면.

7) 권영철, 위의 책, 77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이십여 년이 지난 2월 초에 모처럼 친정에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옷놀이를 하면서 그것을 잊지 못하겠다며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를 보면 그들이 겪었던 그간의 속사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이 노래는 ‘감별곡’이란 제목과 함께 중서로 분행되어 가로 460cm, 세로 20cm의 두루마리 한지에 모필로 적혀 있다. 표기가 국문으로 되어 있고, 전체 글자수는 2,096자이고 237구의 중형가사이다.⁸⁾

작품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즈이(자애)’ · ‘시월(세월)’ · ‘익석(애석)’ · ‘무송하야(무상하야)’ 등에서처럼 ‘아래·’를 사용하고 있다. ‘쏟을바다(본을 받아)’ · ‘썸’ · ‘썸들’ · ‘꽃노래(꽃노래)’ · ‘빨이가는(빨리가는)’에서처럼 고어에서 주로 쓰였던 복자음, ‘화순지락(화순지락)’ · ‘고향산천(고향산천)’ · ‘천만시(천만세)’에서처럼 복모음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늘날 쓰고 있는 근대어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감별곡>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근대이행기에 자주 나타나는 표기법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작품의 150구에서 ‘군즈계 허의어더 빨이가는 즈동츠의 날린다시 몸을시려’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작품은 20세기에 지어졌을 것이란 추측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어서 서술되는 ‘그러나 이런 말은 미리의 공손이르’라는 구절에서처럼 그것은 뜻밖의 훗날에 대한 기대일 뿐이다. 이것은 새로운 문명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창작 년도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보급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에 나오는 ‘논실(論瑟)’이란 지명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불렀던 지명이다. 일제시대에는 대신에 ‘답곡(沓谷)’으로 개칭되어 불렀다가

8) 가사는 60구를 밀도는 것을 단형가사라 한다면, 300구를 밀도는 것을 중형가사라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구수율을 가진 것을 장형가사라 할 수 있다.(홍재휴, 「가사」,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 편), 새문사, 1985, 173면.)

20세기 말엽인 근래에 이르러서야 ‘논실’이라는 지명을 되찾았다. 이것에서도 이 작품은 일제 이전에 지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의 말미에 ‘임신연 이월 넘어닐 출서, 병신연 이월팔일 등서’라는 언급에서처럼, ‘임신연’은 임신년(壬申年)의 간지로써 1892년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감별곡>의 표기 형태나 간지 표지가 개화기인 1892년 2월 2일에 작성되어 1896년 2월 8일에 필사된 것을 알 수 있다.

4. <감별곡>의 작품 구성과 담론 내용

4.1 작품 구성

<감별곡>의 작품 구성은 대부분의 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사’ - ‘본사’ - ‘결사’로 이뤄져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기승전결’ 4단 구성의 양식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사’가 ‘본사1’ · ‘본사2’ · ‘본사3’으로 나뉘지면서 내용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사’ 부분은 1~4구의 ‘어제밤 부든 바람 화류동풍 와년하다. 우리소회 풀어닉야 감별곡 지으리라’가 그것에 해당한다. <감별곡>의 서사에서는 작품명과 창작 동기가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완전한 봄을 맞아 느낀 바를 서술하려고 가사 작품인 <감별곡>을 지어야겠다는 창작 의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소회 풀어닉야’라는 어구에서처럼 소회 대상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논의하겠지만 본사를 보면 이들은 출가한 7명의 아녀자들이다. 창작자는 한 사람이겠지만 가사 내용은 일곱 명의 여성들이 정서적 공감대를 함께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봉건체제의 가부장사회에서 소회가 많았던 모든 여성들의 애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사’는 5~6구인 ‘천의의 혼변 이별 언적다시 드라오며’에서 235~236

구인 ‘잘가라 잘잊거라. 무지일조 할 일이다.’까지이다. 그런데 ‘본사’는 내용 전개에 따라 다시 ‘본사1’·‘본사2’·‘본사3’으로 구분된다.

‘본사1’은 ‘천의의 혼변 이별 언저다시 드라오며’에서 ‘술~히 부난바람 한숨세워 부러준다’까지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삶의 과정인, 성장하여 결혼하면서 부모형제의 곁을 떠나는 여성의 처지를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로부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화자는 결혼이 하늘의 뜻이었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아득한 꿈만 같다고 회상한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슬하에서 형제와 화목하며 자라다가 삼중 지도의 고법에 따라 부모 형제와 다정한 여러 친구들을 떠나 출가하는 운명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모두들 성장하여 20세를 전후로 출가하였는데, 이것은 타고난 여자의 운명으로 조물주의 시기이며 여성들의 처지는 애처로움과 한숨밖에 없다는 푸념이다.

‘본사2’는 ‘그나마 우리 친구 누구~~ 모혀든고’에서 ‘세승스 난이니 선 중강 무궁이라’까지이다. 그 내용을 세분하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본사2’의 첫째 부분은 ‘그나마 우리 친구 누구~~ 모혀든고’에서 ‘딤인접물 순흐지덕 췌칠일이 난감하다’까지이다. 여성 7인이 출가한 집안의 내력과 각각의 성품을 읊고 있다. 천전(안동시 천전마을 의성김씨 세계지)으로 출가한 김서방댁은 덕이 있고 은근하며 정다운 성품이고, 논실(경북 영천군 논실)로 출가한 남서방댁은 풍정이 좋다. 뇌급(미상, 내급)으로 출가한 김서방댁은 천성이 화순하고 의연하고, 호촌(경북 영천군 호촌리)으로 출가한 남서방댁은 순후하고 부덕과 인정이 많다. 외늬(烏川, 경북 안동군 예안면 오천동 외내리)로 출가한 김서방댁은 의연하고, 으인(의인, 경북 안동군 의촌동 의인리)으로 출가한 이서방댁은 온순하고 다정하다. 호지말(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로 출가한 남서방댁은 쾌활한 성품으로 서술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7명의 출가한 아녀자들이 지닌 각각의 성격과 품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아녀자들은 모두 덕이 있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전통적인 현모양처로 묘사되는 특징이 있다.

이들 7인은 모두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성장하다가 출가한 벗들

로 보인다. 아직 출가의외인으로 여겨지던 이 시기에 이들 여성 7인이 어떤 연유로 꽃피는 봄날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꽃구경과 뱃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우의를 다지고 있는 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당시에 출가한 여성들이 친정 마을에 돌아와서 집단으로 회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봉건사회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친구 누구~~ 모혀든고’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잠시 고향 친가에 와서 만난 사람이 일곱 사람이라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감별곡>의 작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일곱 사람이 공동으로 서술하고 있는 듯하나, 그 중의 하나가 지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사2’의 둘째 부분은 ‘이러한 우리 친구 이시송의 쏘이쓰라’에서 ‘세송스 난이니 선중강 무궁이라’까지이다. 여기에서 이들 여성들은 쓰리고 맺힌 회포와 설움을 말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여성들은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새로운 문명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반기며 새로운 문물 수입과 문명의 개화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여성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나 옷놀이를 하면서 잠시 즐거웠지만 언제 다시 모여서 화전놀이나 뱃놀이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문제는 150구의 ‘군즈계 허의어더 쌀이가는 즈동츠의 날린다시 몸을시려’라는 구절에서부터이다. 여기에서 화자들은 빨리가는 자동차에 날린듯이 몸을 신고 그리던 고향산천, 부모형제와 친구들의 상봉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서 서술되는 ‘그러나 이런 말은 머리의 공손이르’라는 구절에서처럼 그것은 뜻밖의 훗날에 대한 기대일 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문명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가사 작품의 창작 년도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보급되기 이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본사3’은 ‘그르나 우리 친구 다각기 붓탁ㅎ세’에서 ‘이갓탄 교분으로 이별을 어이하리’까지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여성 7인이 친구로서 서로 권계

하며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모두 자부심이 있는 명문가로 출가한 몸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시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남편을 정성으로 받들고 제사와 손님을 삼가하고 공경해야 하고 친척과 비복에 대해서는 화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 덕을 닦으며 서로 보지 못하는 동안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것이다.

이처럼 ‘본사3’에서 이들 여성 7인은 여성들이 봉건사회의 구속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윤리 규범을 존중하고 따르자는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들은 남성중심의 전통 규범을 한탄하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태도와 가치를 보이고 있다.

‘결사’는 ‘두어라 새승인스 조변석화 십계되이’에서 마지막 구절인 ‘우리 소회 만분이나 아라주소’까지이다. 결사는 이들 여성 7인이 자신들의 이별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독자들이 그러한 여성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4.2 담론 내용

<감별곡>은 개화와 더불어 새로운 서구 문물이 유입되는 시기에 지어졌다. 이 시기의 일부 선각자들은 유교적 인습에서 벗어나 자아를 각성하면서 새로운 문명사회에 눈을 떠가고 있었다. 이를 전후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계급제도를 비롯하여 과부의 재혼 금지와 같은 그동안 봉건사회를 지탱해온 제도도 폐지되었다.⁹⁾ 우리는 이 시기를 개화기라고 일컫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인습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에 나온 규방가사 <감별곡>에서는 조선사회 남존여비의 봉건제도 아래에서 여성들이 삼종지도라는 전통적인 규범을 따라야만 하는 고통과 원망의 내용을 담론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은 성장하여 결혼하면서 출가의외인이라는 전통적 규범에 따라 부모형제나 친구들과 헤어져서

9) 여성학교재편찬위원회 편,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출판부, 1986, 92-100면.

다시는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별의 고통을 담론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감별곡>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이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근대 문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억압해온 전통 규범들이 그것에 의해 변모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남존여비의 유교적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치 규범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당시 대다수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유교적 인습에 놓여 있었던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천의의 혼변 이별 언지다시 드라오며
 월희의 즐기든일 언제런가 꿈이로다
 여즈의 혼변 거름 원부모 이형지라
 부모님 슬전이셔 동기지정 모와눗코
 널친척 지화로서 화순지락 즐기다가
 고법이 귀중하야 명문이 출가하야
 습종지 쏜을바다 동서로 헛터진이
 즈이 곱흔 부모실전 언지다시 옛다드며
 다정튼 여러 친우 훗기약이 방연하고
 그리운 고향순천 언지불고 변~하다
 차흠다 우리 여즈 익쳐롭고 그지업너
 이십연 긴시월을 년척점옥 자라날제
 빅천가지 기리준난 천만시로 아라든이
 조물이 시기런가 천전의 연분인가
 일조의 풍운이별 구고간장 녹여닌이
 몽~히 나린봄빛 별누을 디신히 듯
 술~히 부난바람 한습세워 부려준다

<감별곡>의 본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봉건사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고통과 한탄을 말하고 있다. 조선조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세운 봉건국가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봉건국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이나 체제가 남성 위주로 구축되었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그것의 주변부를 맴돌았을 뿐

이다. 먼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봉건사회에서 여성이 삼종지도의 고법에 따라 출가한다는 것은 결혼이라기보다는 시집을 간다는 것이다. 결혼이란 여성에게 자연히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비롯하여 슬하에서 함께 성장한 혈육들,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성장한 친구들과 다시는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출가외인으로 머물게 한다. 그것은 아무리 명문 지가로 출가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봉건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20세 전후가 되면 누구나 시집가서 낭군을 따라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부모형제나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된다. <감별곡>에서의 화자는 그것을 여자의 운명이자 조물주의 시기로 받아들이며 체념하면서 한탄하고 있다.

습춘하류 조혼시절 불원간 남겨두고
 익석혼 이 즉별은 어이하야 하즌말고
 연화봉 꽃노리와 스쥬강 비노름을
 습월만간 기약현이 오날날 헤어진후
 소일진한 어이할고 구십춘광 연만화난
 도쳐만 다 잇건만은 우리여즈 이서름은
 언지다시 이슬손가 우리 한번 훗터진후
 뉴슈갓치 가는 과음 춘풍츄우 지나가서
 혼양빅발 벗구명은 시흥~~ 부즈리라
 악슈승봉 일석달난 두변잇기 더러운이
 슬푸다 우리몸이 녀즈된 것 한이로다
 인간이별 예로부터 비빅비천 잇건마은
 우리들 이이별은 압기약이 모연하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던 여성 7인이 출가하여 헤어졌다가 40대 중년 여성이 되어서 다시 만났다. 이들은 꽃구경과 뱃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옷놀이를 하면서 오늘을 잊지 못하겠다고 토로하였다. 위에서 화자는 자신을 비롯한 여자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아득하다고 말한다. 화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고 발전하면서 세상이 달

라질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여보소 너리친구
우리비록 너즈이나 시딕가 네과달나
선풍조선 문화가 방~곳~ 슈입되고
슈로곳통 보든설비 펼이하기 쪽업슨이
금신봉별 호은후의 뉴시록 그림그던
만~전의 음신호고 추월춘하 조흔썸며
구고게 풍연호고 군즈게 허의어더
쌓이가는 즈동츠의 날린다시 몸을시러
그리든 부모슬전 정드른 고향스천
다서몸 모혀드러 혼~담낙 즐겨보시
그러나 이런 말은 미리의 공손이르

화자는 친구들에게 우리들이 비록 여자로 태어나서 출가외인으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운명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대가 옛날과 달라지고 있으며 곳곳에 수로와 교통이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편리한 우편과 빠른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명의 개화와 더불어서 화자는 앞으로 시부모께도 여유로우며 남편에게 허락을 얻어 빠른 자동차를 타고 친정부모와 고향 산천을 대면하고 친구들의 상봉을 기약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미래의 추측일 뿐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화자는 새로운 문물이 수입되고 문명이 개화하면서 지금까지 여자를 억압하고 구속했던 봉건 제도도 머잖아 변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몸은 여즈이라 남즈와 달오나
명조의 후예로서 출가명문 호야스니
각으로 훗터져서 시딕으로 가그들낭
사구고이효호고 봉군즈 이성호고
봉계스 접빈식을 습가호고 공경호며
딕친척이비복을 화복히을 슈로습아

입스 뽀을 바다 중강의 덕을 짝가
 낙~도록 못본동안 히소식 전히다가
 히년히월 다시만나 지금이별 옛말습아
 히~낙~ 히게되며 인간이 조흔일이
 나밧기 쏘이슬가

앞서 화자는 문명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전통 규범을 준수하고 따르려는 태도와 가치를 보이고 있다. 화자는 자신들이 훌륭한 조상의 후예이자 명문가로 출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봉건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각기 시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자로서 시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남편을 정성으로 받아들여 한다(事舅姑以孝, 奉君子以誠)는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를 삼가 정성스럽게 지내야 하고 손님을 공경스럽게 접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奉祭祀, 接賓客). 이것은 양반 집안의 일상생활에서 법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덕목이다. 나아가서 양반 집안의 며느리로서 친척들이나 비복들을 화목으로 상대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의 하나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 덕목들은 조선시대 양반 집안의 아녀자들이라면 마땅히 준수하고 지켜야 할 유교적 덕목의 사항들이었다. 양반집 아녀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와 같은 덕목들을 잘 지키고 덕을 닦으며 때를 기다려 만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봉건사회에서 양반가 아녀자로서의 자부심이 극대화되고 있다. 하지만 봉건사회에서 여성들의 존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였는가는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에 이르러서 다시금 확인된다.

두어라 새송인스 쵸변석화 십게되이
 한탄한들 무엇하며 말히션들 소용있나
 만닐 썩나 금시극지 무험히 즐기다가
 작별상의 다달나서 잘가라 잘잇거라
 무지일조 할 일이로다

보시난 여러분도 고안의 불만이다
우리소회 만분이나 아라쥬소

이것은 작품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사 부분이다. 정리하자면 <감별곡>은 처음에 가부장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여성들의 소회를 풀어보겠다는 창작 동기를 시작으로 성장하여 출가하면서 겪고있는 여성들의 회포와 설움을 말하고 있다. 그러다가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사실을 의식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명문 집안으로 출가한 아녀자로서의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전통적 규범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며 각오를 말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처럼 작품을 마무리하는 결사 부분에서는 다시금 체념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담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감별곡>은 남존여비의 유교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타자화되어 힘든 삶을 영위하는 내용을 담론화하고 있다. 작품에서 여성으로 여겨지는 화자는 그것에 대한 불만과 한스러움을 표출하며 부분적으로 새로운 문명사회를 자각하며 그것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며 전통적 규범을 고수하려는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감별곡>만의 특징이 아니라, 탄식가류의 규방가사에서 나타나는 ‘혼돈, 착종, 어그러짐, 중첩’ 현상으로 파악된다.¹⁰⁾

5. 맺음말

이번에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는 <감별곡>은 19세기 말엽의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개화기에 경상도 안동의 향촌에서 양반 집안의 아녀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지은 규방가사이다.

10)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한국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층』(국제어문학회 편), 국학자료원, 2002, 89-112면.

<감별곡>은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다가 출가했던 아녀자 7인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재회를 기약하는 신변탄식류의 가사작품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표기법이나 어휘 사용과 같은 이런저런 정황으로 미루어 근대 직전인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초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작품의 마지막에 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개화기인 1892년 2월 2일에 작성되어 1896년 2월 8일에 필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별곡>의 작품 구성은 대부분의 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사’ - ‘본사’ - ‘결사’로 이뤄져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기승전결’ 4단 구성의 양식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것은 ‘본사’가 ‘본사1’ · ‘본사2’ · ‘본사3’으로 나뉘지면서 내용 전환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별곡>은 아녀자 7명이 모처럼 만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출가하여 친정의 부모형제나 친구들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 원망과 한스러움을 주제로 삼고 있다.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 개화기에 지어져서인지, 여성들이 자신들의 설움과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새로운 문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기면서 그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중심의 전통 규범을 한탄하면서도 그것을 존중하자면서 그들의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문명 개화의 감새를 실감하면서도 아직 남존여비의 유교적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치 규범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 마디로 <감별곡>은 조선사회 남존여비의 봉건제도 아래에서 여성들이 삼중지도라는 전통적인 규범을 따라야만 하는 고통과 원망의 내용을 담론화한 작품이다. 그래서 <감별곡>은 봉건사회에서 사회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고통과 한탄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조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세운 봉건국가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은 남성 위주로 구축된 이념이나 체제를 위해 그것의 주변부를 맴돌았을 뿐이다.

참고문헌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9-32면.
- 김문기, 「가사」, 『한국문학개론』(성기옥 외), 새문사, 1992, 148면.
- 김석하, 『한국문학사』, 신아사, 1975, 255면.
- 김선풍, 「강릉지방 규방가사 연구」, 『한국민속학』9집, 한국민속학회, 1977, 1-25면.
- 박석의, 『국문학통론 · 국문학사』, 이우출판사, 1980, 418-419면.
- 박요순, 「호남지방의 여류가사 연구」, 『국어국문학』48집, 국어국문학회, 1970, 67-89면.
- 사재동, 「내방가사연구서설」, 『한국언어문학』2집, 한국언어문학회, 1964, 127-141면.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한국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층』(국제어문학회 편), 국학자료원, 2002, 89-112면.
- 여성학교재편찬위원회 편,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출판부, 1986, 92-100면.
-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128면.
-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의 생애경험」, 『고시가연구』24집, 한국고시가학회, 2009, 197-234면.
- 정형용, 『국문학개론』(우리문학회 저), 일성당서점, 1949, 185면.
-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430-435면.
- 홍재휴, 「가사」,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편), 새문사, 1985, 173면.

투고일 : 2010년 6월 19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Regarding <Gambyeolgok>, the new Gasa work

Gu, saw-hae

<Gambyeolgok> is categorized into Gyu-bang Gasa which contains stories including criticism and grievance situation of women from Yangban families. <Gambyeolgok> deals with private laments of seven ladies who had been grown at the same town until they got married. They are reunited 20 years after their marriage sharing the wonderful time and promise to meet again. Judging from the notation and words the characters use and the colophon printed at the end of the book, this work is regarded to be written about February 1892, the period of enlightenment.

The structure of this stor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such as 'Seosa(introduction),' 'Bonsa(body),' Gyeolsa(closing), which is the most common type of Gasa works. 'Seosa' presents the title and the writing motivation of <Gambyeolgok>. 'Bonsa'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gain. The 'Bonsa 1' shows the way grownup girls leave their parents upon getting married. 'Bonsa 2' again separates into two. The first part describes the married families,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ies of each seven characters. The second part criticizes women's lives filled with misfortune and sorrow, and at the same time pictures the hope and expectation about the upcoming new civilized age. In 'Bonsa 3' seven characters plead how they suffer from feudalistic restriction and yet reestablish their resolution to respect traditional ethics.

In 'Gyeolsa' part describes the picture that these seven women resignedly

accept their reality as they have to part with each other. This also tries to appeal readers for sympathy about the grievous situation of the women.

In short, <Gambyeolgok> is designed to discourse on the grief and sorrow of the women who are destined to follow traditional morality named 'Samjongjido (patriarchal ideology which is pressured to women)' in the male-dominated feudalism society. Thus, <Gambyeolgok> contains grievance and difficulties of the women who live just as assistants instead of being subjects of their own lives.

Key words : Gyu-bang Gasa, An-dong Munhwakwon(An-dong cultural area), Samjongjido(patriarchal ideology which is pressured to women), Bongjesa(serving ancestral rites), Damron(discourse), Taja(other person, assistant)